연 재 ◦ㅣ

自然公園과 野生鳥

호 사 도 요

• **학 명** : *Rostratula benghalensis*
• **영 명** : Painted Snipe

세상에는 별스런 생태를 가진 새들도 있다. 보통 새들은 한 숫컷에 암컷 한 마리를 거느리며 여필종부 하면서 종족유지라는 숙명적 삶을 영위하지만 땅에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꿩과의 새들은 한 숫컷이 여러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 일부다처의 가족제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호사도요는 그와 반대로 암컷이 숫컷에게 접근하여 교미하는 즐거움으로 얻어진 수정체를 잉태하여 서너개의 알만 낳아주면 숫컷은 19일 간을 죽자 살자 품은 뒤 어린 새끼가 태어나면 엄마없는

자식들을 길러내게 된다.

다행스럽게 조류는 젖으로 새끼를 기르지 않기 망정이지 젖으로 새끼를 길렀다면 이미 이 종은 멸종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천륜을 저버린 어미새는 다시 새로운 신랑새를 찾아 다니며 패륜을 거듭하는데 암수의 성비나 번식횟수 같은 생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 호사도요는 보기가 힘든 새 중의 하나이다.

이 새가 1758년 린네에 의해 처음 명명된 이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887년 서울에서 처음 채집된 것이 첫 기록이다.

기십종에 달하는 모양새가 엇비슷한 도요류는 대다수가 봄과 가을 한반도를 거쳐 일년에 두번 지나가는 나그네새들인데 호사도요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호사도요는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일본, 필리핀 등지에 폭넓게 분포하는데 다만 이 종은 한반도로 도래하는 숫자가 적을 뿐이다.

도요류의 일반적인 생태는 무리생활로 갯벌이나 해안 등지의 모래톱을 생활 근거지로 삼으며 수생동물을 주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호사도요는 대개 집단생활보다는 다소 단독생활을 즐기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생활 영역도 개울이나 물고인 외진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습성이 있다.

자연계의 생태는 급변하는 환경 여건에 따라 교란이 오던지 변화가 오면 이변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호사도요의 도래개체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더욱더 희소해질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물과 인연하여 사는 물새들은 나날이 수질오염으로 열악해지는 서식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워 감소일로에 있고 생태계를 무시한 매립이나 개발 등은 종의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큰 행위임을 부언해 두고 싶다. ●

글 · 사진 **李正雨** (삼육대 교수. 동서조류연구소장)